
Ⅲ. 보험회사 영향 및 대응

1. 보험산업 영향

가. 미국

■ (손실 규모) 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영국 손해보험시장의 보험손실 규모는 코로나19가 6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가정할 경우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¹⁾

- 기업휴지·행사취소보험은 정부의 업장 강제폐쇄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청구가 증가하여 59~113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등 단기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의료 및 건강관리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노출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9억 달러의 손실 발생이 추정됨
- 기업의 직원 확진자 정보 노출, 근무시간 단축, 해고 등의 사유로 기업의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가 늘어나 약 13~1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부적절한 대처 등의 이유로 일반배상책임보험(요양병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포함)의 손실 또한 7억 2,200달러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감소하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403억 달러 감소하고,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66억 달러의 보험금 지급 감소가 예상됨

1)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표 1〉 미국 -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보험종목별 영향 추정

보험 종목	2020년 보험료 예상	보험금 청구 영향
기업휴지 및 행사취소보험 (BI & Contingency)	보험료 9.9% 감소 예상	59~113억 달러 손실 예상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 18% 감소 예상	69억 달러 손실 예상
고용배상책임보험(EPL)	점진적 감소 예상	13억~16억 달러 손실 예상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6% 감소 예상	7억 2,200달러 손실 예상
자동차보험	(개인용) 160억 달러 환급 예상 (상업용) 7억 달러 환급 예상	(개인용) 403억 달러 손실감소 예상 (상업용) 66억 달러 손실감소 예상

주: 1) '중간 시나리오(Moderate Scenario): 6개월 내 코로나19 점진적 완화' 기준 추정치임

2)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 종목 위주로 소개함

자료: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p. 24를 재구성함

나. 일본

- (생명보험 영업실적)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영업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4/4분기 외화보험 영업실적이 외국채권 수익률 하락과 방카슈랑스 판매 중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하고, 종신보험도 약 40% 감소할 전망이다²⁾

- (순이익) 다이이치(第一)생명홀딩스 사장은 금융시장 혼란에 의한 금리 및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해외사업) 니혼(日本)생명은 호주 자회사인 MLC가 코로나19와 호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등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³⁾

- (비대면 영업 전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대면영업을 자제하고 비대면영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2020년 5월 7일부터 저축성상품을 제외한 보장성상품에 대한 영업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니혼(日本)생명, 다이이치(第一)생명도 비대면 영업방식을 허용할 전망이다⁴⁾

2) 日本經濟新聞(2020. 5. 12)

3) 日本經濟新聞(2020. 3. 18)

- (Moody's 평가) Moody's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함⁵⁾
 -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특히,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여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은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국내주식과 외국채권, 외환 등 다양한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시장 하락 및 급속한 엔고 발생 시 큰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임
 - 다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대규모 장기 보유계약 때문에 신계약이 급감하더라도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전망됨
- (Fitch Ratings 평가) 그러나 Fitch Ratings는 코로나19가 일본 국내 보험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함⁶⁾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적건강보험에 의한 보장률이 높아 민간 보험회사가 인수할 리스크가 적음
 -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상 입원급부금 지급 시 금액과 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임

다. 중국

- (수입보험료) 2020년 1/4분기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p 하락한 2.3%에 그쳤음⁷⁾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2019년 1/4분기에 비해 각각 15.3%p, 7.0%p 낮아진 2.7%, 0.3%로 하락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배당보험 및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도시 봉쇄 방역

4) 日本經濟新聞(2020. 5. 2)

5) Moody's(2020. 4. 9)

6) 日本經濟新聞(2020. 3. 18)

7)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4), “2020年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9. 4), “2019年1-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조치로 인한 은행 채널의 판매 위축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9%, 13.8% 감소함⁸⁾

○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함

- 2020년 1/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3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4% 급감함⁹⁾

■ (지급보험금) 2020년 1/4분기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부담 및 기업휴지보험의 낮은 가입률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음¹⁰⁾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각각 2019년 1/4분기 -6.1%, 15.9%에서 -38.1%, -11.7%로 하락함

○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감독당국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기관매 생명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사망보험금 및 입원일당만을 제공함

-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치사율은 5.6%에 불과함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및 운송보험이 거의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이용 감소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은 감소함¹¹⁾

- 확산 이후에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은 25개가 출시됐지만 중국 기업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손해보험 중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지급보험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증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¹²⁾

■ (당기순이익) 2020년 1/4분기 중국 상위 보험회사인 중국인수생명 및 중국 평안보험의 당기순이익은 금리 및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4%, 42.7% 하락함¹³⁾

○ 2020년 1/4분기 중국인수생명 및 중국평안보험의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p, 1.7%p 하락한 5.1%, 3.4%로 낮아졌음

8) 慧保天下(2020. 4), “疫情下分红险锐减17% 车险降近3% 谁才是保险业增长极?”

9) 经济观察报(2020. 4), “一季度汽车销量下滑42.4% 中汽协担忧需求端受损”

10) 亚洲金融合作协会(2020. 2), ““新冠肺炎”对保险业的短期冲击和长期机遇”

11) 上海证券报(2020. 3), “保险业推出营业中断险 25款产品护航企业复工”; 证券日报(2020. 3), “1月份保费收入同比增6.8% 车险赔付同比降15%”

12) 中国智库网(2020. 4), “朱俊生:新冠肺炎疫情对保险业的影响及建议”

13)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4), “2020年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9. 4), “2019年1-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 (시장전망)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2020년 1/4분기에 둔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2/4분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¹⁴⁾
- 보험설계사 및 은행 채널의 보험판매는 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도입된 도시 봉쇄 방역 조치로 제한받았지만 2월 하순부터 생활 방역 조치기 시행되면서 재개됨
 - 2020년 3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1~2월 수입보험료 증가율인 1.1%에 비해 4.1%p 확대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보험 가입 증가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상승은 앞으로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1/4분기 4개 온라인전문보험회사를 기준으로 집계된 온라인보험 수입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3%, 21.5% 증가한 바 있음
 - 4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손해보험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2020년 4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면서 21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¹⁵⁾
 - 2018년 기준 중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가 각각 295유로, 3.6%로 세계평균 수준(614유로, 5.4%)보다 매우 낮아 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¹⁶⁾

14) 中国金融新闻网(2020. 5), “疫情影响减弱二季度保费收入有望继续回暖”

15) 21世纪经济报道(2020. 5), “4月汽车销量同比增长4.4%结束21个月连续下滑”

16) 经济观察报(2020. 4), “一季度汽车销量下滑42.4% 中汽协担忧需求端受损”

라. 대만

■ (수입보험료) 2020년 1/4분기 코로나19의 영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나타남¹⁷⁾

○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7,832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480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함

- 생명보험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는 건강보험은 의료수요 증가,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신계약보험료 기준 99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함

- 손해보험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여주는 항공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운항 급감 및 작년 12월에 발생한 민항사 파산으로 총수입보험료 기준 1.3억 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41.2%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의 판매 위축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연금보험 매출 감소는 이번의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 원인임

- 2020년 1/4분기 연금보험 신계약보험료는 763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하락함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보험 판매가 2월부터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손해보험은 증가세를 유지함

- 2020년 1/4분기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각각 234억 대만달러, 119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10.9% 증가함

■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2020년 1/4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보험의 지급보험금은 3,622만 대만달러를 기록함¹⁸⁾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여행경보가 발령되면서 여행 계획 변경, 취소나 단축이 발생했기 때문임

■ (환헤지 손실) 2020년 1/4분기 보험회사의 환헤지로 인한 투자손실은 817억 대만달러를 기록함¹⁹⁾

17) 現代保險(2020. 4), “疫情助攻第1季健康險正成長”; 現代保險(2020. 4), “受疫情影響今年首季航空險保費大跌4成”

18) 卡優新聞網(2020. 5), “旅遊禁團令衝擊產險首季理賠金破3500萬”

19)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109年3月保險業兌換損益、避險損益與外匯價格變動準備金情形”

○ 이는 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임

■ (시장전망) 무디스(Moody'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의 영향으로 대만 생명보험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함²⁰⁾

○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인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

마. 유럽

■ 런던 재보험사인 로이드(Lloyd's)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보험영업 및 투자 손실이 2,030억 달러(1,66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²¹⁾

○ 팬데믹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은 총 1,070억 달러이며,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손실 금액은 96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이벤트 취소보험 및 재산보험, 여행보험에서 280억 달러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신용보험에서 추가 보험금 청구가 예상됨

■ 로이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규모 및 복잡성으로 전 세계 손해보험산업의 손실이 역사적 사건들의 손실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함

○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1,5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고객 지원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로이드의 자문위원회와도 협력 중임

- '리커버 리(Recover Re)'라고 불리는 팬데믹 관련 사업회복 사후보장 수단이 검토되고 있음

20) 中央社(2020. 5), “疫情引發經濟衝擊 穆迪維持對台壽險負向展望”

21) Lloyd's(2020. 5. 14), “COVID-19 will see historic losses acros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 로이드의 예상 손실액은 다른 예측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²²⁾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예측들이 있음
- Willis Towers Watson²³⁾은 락다운(Lockdown) 조치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미국과 영국 보험시장이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함(2020년 5월 1일)
 - UBS²⁴⁾는 보험 손실액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2020년 4월 24일)
 - Allianz는 코로나19로 인한 알리안츠의 손해가 10억 유로(약 10억 7,939만 달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²⁵⁾
 -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여행보험에서만 최소 2억 7,500만 파운드(약 3억 1,900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²⁶⁾ 개인 및 기업에 대해 12억 파운드(약 14억 6,900만 달러)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함²⁷⁾

22) Insurance Post(2020. 5. 14), "Covid-19 will cost insurance industry \$203bn, says Lloyd's"

23)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중개, 자문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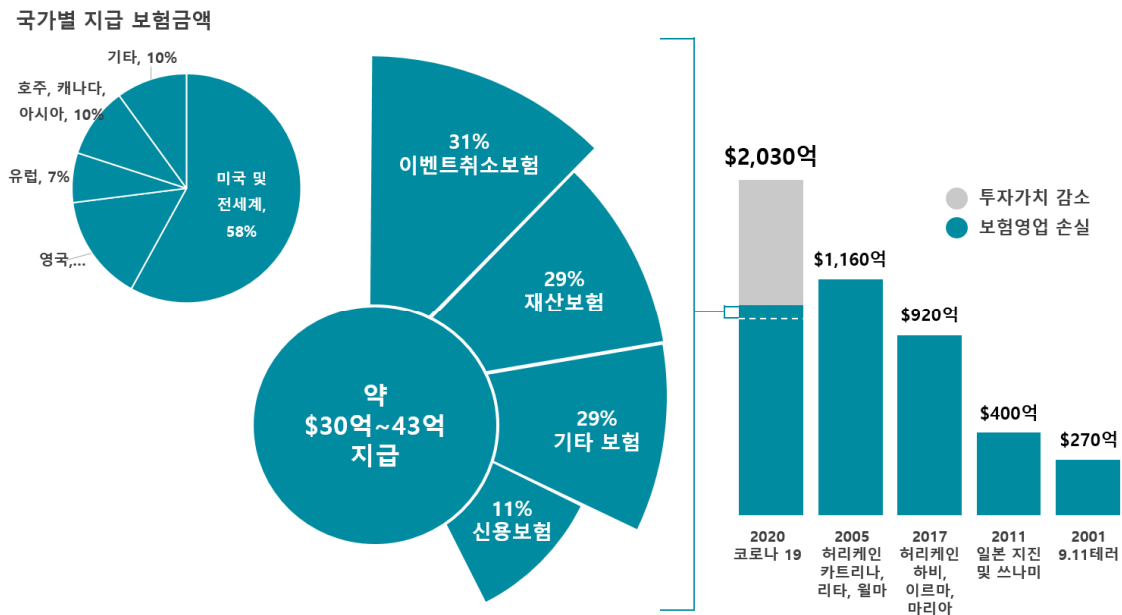
24) 스위스 연방은행과 스위스 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위스의 금융 그룹임

25) Insurance Post(2020. 5. 12), "Allianz CFO outlines potential €1bn plus Covid-19 hit"

26) ABI(2020. 3. 24), "COVID-19 - Travel insurers expect to make record payouts to customers"

27) ABI(2020. 4. 25), "Covid-19: Payouts of over £1.2 billion likely to be made to customers according to latest estimate from the ABI"

〈그림 1〉 코로나19에 대응한 Lloyd's의 사업 지원



자료: Lloyd's(2020. 5. 14), "COVID-19 will see historic losses acros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건강보험) 호주 연구기관(Australia Institute)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간건강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35억~55억 호주 달러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²⁸⁾

○ 보험가입자는 평균적으로 500~750호주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간건강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

■ (여행자보험) 호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여행을 취소한 가입자들의 여행자 보험료 환불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8) 호주 연구기관(<https://www.tai.org.au/content/private-health-funds-reap-5-billion-pandemic-windfall>)

- 호주 정부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로 인하여 여행자 보험상품의 보험료 환급 신청이 120억 달러를 기록함²⁹⁾

2) 싱가포르

■ (생명보험)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생명보험산업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칠 것으로 전망됨³⁰⁾

-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신규 보험 가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Swiss Re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설문대상자 중 신규 보험가입 의향은 31%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보험가입한 소비자는 16% 증가하는 등 보험수요가 증가함³¹⁾
- 한편,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 예상 등은 생명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4분기 신규수입보험료는 신규 상품개발 및 활발한 프로모션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억 6천 6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로 12억 1천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2019년 4/4분기 대비 21% 감소함

■ (손해보험) AM Best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손해보험은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모두 존재하지만 부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됨³²⁾

- 2019년 싱가포르 손해보험 영업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초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손해보험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됨
- (자동차보험) 코로나19로 자동차 대리점 영업이 중지되고 면허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는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는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

29) 호주 보험신문(<https://www.insurancenews.com.au/daily/calls-for-travel-premiums-to-be-refunded>)

30)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industry-performance/2020/life-insurance-industry-achieves-20-per-cent-increase-in-sa-for-q1-2020/>)

31) Swiss Re(2020. 4. 29), "COVID-19 Consumer Survey Singapore", <https://www.swissre.com/dam/jcr:5235c471-991f-4857-bd29-5973cfaa8270/covid19-infographic-apac-singapore.pdf>

32) AM Best(2020. 4. 27), "Singapore Non-Life Insurance: COVID-19 Impacts Add to Deterioration in Underwriting Results"

- (건강보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비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킷 브레이커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감소함에 따라 의료비 청구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여행자보험) 2019년 싱가포르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의 5%를 차지한 여행자 보험상품이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판매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 (납입 연장 영향)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생명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해줌에 따라, 가입자들의 납입 연장 요청 건수가 늘어났지만, 보험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³³⁾

- CNA에 따르면, 2020년 5월 17일 기준 AIA 보험회사는 6,100건, Great Eastern 보험회사는 2,800건, Manulife 보험회사는 500건의 납입 연장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³⁴⁾
-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금융서비스 자문가는 납입 유예 기간의 연장일 뿐,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함

33)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 /id/61783/Type/eDaily/Singaporeans-flood-life-insurers-with-premium-deferment-applications](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783/Type/eDaily/Singaporeans-flood-life-insurers-with-premium-deferment-applications))

34) Channel News Asia(CNA)(<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thousands-seeking-to-defer-payments-of-insurance-premiums-video-12743208>)

2. 상품개발 및 보장확대

가. 미국

- (지수형 보험) 코로나19로 전염병 관련 보장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³⁵⁾
 - (장점) 전염병 등으로 전 세계에서 손실이 발생하여도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적으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복잡한 손해사정절차가 없어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한계점) 실제 손실과 지급보험금의 차이인 베이스 리스크(Basis Risk)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데이터 부족으로 전염병 위험을 보험료에 정확히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함
- (여행보험) 뉴욕주의 권고(2020. 3. 6)³⁶⁾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전염병 사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CFAR: Cancel For Any Reason) 여행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 CFAR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표준여행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40~60% 정도 높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 Allianz, Nationwide, Starr Indemnity, Berkshire, Crum & Forster, Zurich의 6개 보험회사가 CFAR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35)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pp. 112~113

36)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4

나. 일본

■ 일본 생·손보업계는 금융청의 요청(2020. 3. 13)과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2020. 3. 7)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와 고용유지 대응책을 마련함³⁷⁾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연장)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보험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계약갱신기한 연장) 보험계약자가 3월 16일 이후 도래한 계약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갱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갱신일자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함
 - 또한 계약 갱신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면 갱신일을 소급하여 절차를 진행함
- (보험금 등 청구 절차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급부금, 해약환급금, 약관대출 신청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서류 간편화를 실시함
- (재택근무, 고용유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휴가 제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일본 생·손보업계는 금융청의 요청(2020. 4. 10)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을 확대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³⁸⁾

- (재해사망금 지급) 생명보험업계는 사망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할 경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2배 지급하는 '배액지불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임
- (휴업보상금 지급) 손해보험업계는 휴업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계약자 본인, 종업원, 고객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보상여부 공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판매 중인 보험상품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시 보상 확대 및 보상 여부를 공시하고 있음³⁹⁾

37) 日本生命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3. 17); 日本損害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4. 6)

38) 니혼생명 홈페이지(<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shirase/>), 도쿄해상 홈페이지(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39)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26690R00C20A5XY0000/?n_cid=SPTMG002

다. 중국

- (기업휴지보험)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조업 재개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발로 인한 영업중지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개발함⁴⁰⁾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거나 제공하더라도 코로나19로 비롯한 법정감염병을 보장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신규 개발함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기업보험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새롭게 포함시켰음
 - 저장성 Ningbo시(宁波市)에서 지방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료의 50%까지 부담해줌
- (코로나19 특화상품 개발 금지) 은보감회는 질병 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 개발을 금지했으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하도록 권고함⁴¹⁾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했지만 은보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은보감회의 권고를 고려해 기관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40) 财经网(2020. 4), ““营业中断险”后又推“复工复产险” 国内保险公司如何打算?”

41) 中国政府网(2020. 2), “国务院联防联控机制权威发布(2020年2月15日14时)文字实录”

라. 대만

- (건강보험)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함⁴²⁾
 - 푸본생명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고,新光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장기 입원 시 생활보조금, 중환자실 입원 시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대만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개인손해배상보험) 푸본손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를 보상하는 개인손해배상보험 신상품을 개발함⁴³⁾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기업휴지급여보상보험) 푸본손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직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판매함⁴⁴⁾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월급만큼을 지급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월급의 50%까지 지급함
- (기업휴지손실보상보험) 남산(南山)손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함⁴⁵⁾
 - 동 상품은 1년 만기 상품이며 최고 60만 대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함

42) 富邦人壽(2020. 3), “富邦人壽推全台首張法定傳染病定期健康險「金」放心”; 新光人壽(2020. 4), “新壽推「活力單」醫療險 防疫有保障”; 台灣人壽(2020. 4), “全民抗疫·台灣人壽推「安心365」防疫保單上市”

43) 富邦產險(2020. 4), “富邦產險推出業界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民眾若因法定傳染病須進行居家隔離將可獲得保障!”

44) 富邦產險(2020. 3), “落實政府防疫措施 富邦產險率先推出「企業防疫薪資費用保險」減輕小型企業薪資負擔、維護員工受薪權益”

45) 南山產物(2020. 3), “中小企業主的戰「疫」護盾! 南山產物推「金防疫」專案”

마. 유럽

- 전염성 질병 및 팬데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Marsh, Munich Re, Metabiota는 2018년 PathogenRX라는 상품을 출시하였으나,⁴⁶⁾ 이를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음⁴⁷⁾
 - 전염성 질병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물리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기업들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 손실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 모델링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Marsh의 PathogenRX는 Metabiota의 전염성 질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염성 질병 위험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의료, 여행, 항공, 공공 기관, 스포츠 및 이벤트, 소매점 등의 가입이 가능함
 - 코로나19 확산 후 해당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폭증함
- 영국에서는 Hiscox가 전염병으로 인한 강제폐업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이 준비 중임⁴⁸⁾
 - Hiscox 외에도 Allianz, RSA, Ecclesiastical, QBE, Axa, Zurich 등이 기업휴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여 잠재적 소송 가능성이 존재함⁴⁹⁾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각 보험상품별로 코로나19 관련 보장사항을 밝힘⁵⁰⁾

46) Marsh 홈페이지(<https://www.marsh.com/us/campaigns/pathogenrx.html>)

47) Insurance Journal(2020. 4. 3), "This Insurance Would Have Helped in Coronavirus Crisis But Nobody Bought It"

48) The Guardian(2020. 4. 22), "UK firms plan legal action against Hiscox over Covid-19 insurance claims"

49) Insurance Age(2020. 5. 18), "Covid-19: Hiscox under fresh attack for back-tracking on BI claim"

50)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issues-submissions/covid-19>

- (여행자보험) 호주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로 많은 보험회사는 해외여행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일부 보험회사만이 2020년 후반에 여행자 보험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임
- (기업휴지보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2005년 SARS 발병 이후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면책사항으로 포함시켜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
- (별장보험) 보험회사는 별장보험(Holiday Home Insurance) 가입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폐쇄조치와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방문을 못하게 됨에 따라, 최대 미사용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함
- (임대인보험)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 경제 침체 등으로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임대인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임대인 보험상품을 개발함
- (소비자신용보험) 코로나19로 인해 질병, 상해, 실직, 사망 시, 각 개인별 가입한 소비자 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의 보장범위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개인 대출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생명 및 건강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사망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것임
- (주택보험 및 가재보험) 주택보험 및 가재보험은 코로나19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침사항 변경) 2020년 5월 7일 호주 보험협회(ICA)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개인을 위해 새로운 2020년 일반보험 지침사항(2020 General Insurance Code of Practice) 관련 변경 사항을 발표함⁵¹⁾

- 동 지침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또는 그 이전에 보험회사가 소비자 관련 조항 중 파트9(재정적 취약 고객 지원)과 파트10(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도와주도록 함
- 또한, 보험회사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지원하도록 함
- 호주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2020년 일반보험 지침사항 중 우선적으로 소비자 지원 관련 조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항들은 2021년 7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유예기간을 줌

51)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media-centre>

2) 싱가포르

■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추가 보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⁵²⁾

- (가입자격)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는 2020년 2월 17일~2020년 7월 31일 기간 동안 생명보험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 이 혜택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에게만 제공되며, 2020년 2월 17일 가입 이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야 함
- (보장혜택)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25,000싱가포르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일시불로 1,0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함
- (보장기간) 2020년 12월 31일 또는 전염병 발발 대응 태세(DORSCON)⁵³⁾ 단계가 1단계⁵⁴⁾로 내려간 후, 30일 동안 보장해 줌

52)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https://www.aia.com.sg/en/campaigns-promotions/covid19-special-coverage.html>)

53) Disease Outbreak Response System Condition

54) 총 4단계로 1단계부터 초록색,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순서임

3. 보험회사의 사회적 기여

가. 미국

■ (코로나19 치료비) 미 건강보험회사(Aetna, Anthem 등)은 코로나19 치료비용의 계약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함⁵⁵⁾

○ (Aetna) 기존에 2020년 5월 31일까지 받은 입원 치료에 한정되었으나,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적용 기간을 연장함

■ (원격의료 지원) 미국의 건강보험회사들(Aetna, Anthem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0일간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원격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원격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함⁵⁶⁾

■ (1차 의료 본인부담금 면제) Aetna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Medicare Advantage) 보험계약자의 1차 의료(Primary Care)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보험회사와 계약된(In-network) 의료기관 이용에 한함

■ (추가 지원) Aetna는 헬스케어 회사인 CVS와 제휴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보험계약자에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포함된 구급상자를 제공함⁵⁷⁾

○ 개인 및 가정 청소용품도 포함되어 있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55) Anthem, Press Release(2020. 4. 1), "Anthem Waives Cost Share for COVID-19 Treatment", https://ir.antheminc.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anthem-waives-cost-share-covid-19-treatment?field_nir_news_date_value%5bmin%5d=

56)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0609/type/eDaily/US-Aetna-partners-CVS-Health-to-support-COVID-19-patients>)

57)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0609/type/eDaily/US-Aetna-partners-CVS-Health-to-support-COVID-19-patients>)

나. 일본

■ 일본 생·손보험계는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함⁵⁸⁾

○ (주택·호텔 요양 시 급부) 일본 정부가 호텔과 주택 등을 경증자 임시 요양시설로 허용함에 따라 생명보험계는 계약자가 의사 진단서 제출 시 호텔이나 주택에서 요양할 경우에도 입원 급부금을 지급할 예정임⁵⁹⁾

- 다만,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하지 못하고 임시시설에서 입원과 동일형태로 요양을 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원한 경우로 한정함

○ (본인 확인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본인 확인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원격진료 보상)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 원격진료를 장려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화나 인터넷 진료를 받을 경우 통원급부금을 지급할 예정임⁶⁰⁾

○ (무이자 약관대출) 정부의 무이자 대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보험계약자가 신규로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무이자 약관대출을 제공을 함

○ (기업 대출상환 조건 완화) 기업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할 기업에게 상환 연장 등 대출상환 조건 완화를 실시함

■ 일본 손해보험계는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마련함⁶¹⁾

○ (해외여행자보험 자동 연장)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여행에서 귀국 후 호텔 등 시설에서 자동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택으로 귀가 시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함

○ (상해보험금 지급)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험금 청구 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 소득 보상)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조치에 따라 대면 영업을

58) 니혼생명 홈페이지(<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hirase/>), 도쿄해상 홈페이지(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59) 日本経済新聞(2020. 4. 7)

60) 日本経済新聞(2020. 4. 28)

61) 日本経済新聞(2020. 4. 27)

자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득 보상을 검토 중임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의 경우 전년도 6개월 보험설계사의 영업실적으로 기초로 감소한 급여를 산정하여 성과급여에 반영할 예정임

다. 중국

- (보장범위 확대) 보험회사는 기관매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 중국 정부는 기본의료보험 및 재정지출로 코로나19의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국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치료비용 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험금, 입원 일당의 지급을 제공함

- 2020년 2월 24일 기준 70개 보험회사는 1,210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보장범위에서 포함시켰음

-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보장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설정함

- (보험금 지급 서비스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보험금 청구 접수채널 개설,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 취소와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증권 생략, 보험금 선지급, 병원비 선결제를 포함하며, 취소된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은 면책기간, 지정병원 이용제한, 자기부담한도가 있음

-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해줌

-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및 확산세가 심각한 저장성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를 해줌

-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일반 시민에게 온라인진료 및 심리상담 서

비스,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중국평안보험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굿닥터와 함께 보험회사의 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무료보험 제공)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 경찰, 기사 및 배달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중국인수생명은 우한시에서 일하는 18만 명의 의료진에게 보험가입금액이 9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며, 양광생명은 우한시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방역 물자 및 성금 기부)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방역 물자 및 성금을 기부함

- 3월 27일까지 보험회사는 총 3.76억 위안에 달하는 방역 물자 및 성금을 기부함

라. 대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독 페이지 개설) 대부분 보험회사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 계약 해지, 약관대출 신청, 만기보험금 지급, 보험료 반환 및 연금 지급 등과 같은 보험서비스를 안내하는 단독 페이지를 개설함⁶²⁾

- 해당 페이지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에도 조회가 가능함

■ (보장범위 확대 및 면책기간 취소) 대다수 보험회사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라 코로나19까지 보장하도록 기관매 보험상품의 약관을 수정하며 면책기간을 취소함⁶³⁾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타 법정감염병도 같이 포함시켰음

62)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保險公司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提供之保戶服務相關便民措施網址及服務專線彙總表”

63) 好險在這裏(2020. 3), “69種法定傳染病可免等待期,武漢肺炎保單已上市”

-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함⁶⁴⁾
 - 한편, 케세이생명 및 난산생명은 의료진, 방역 직원, 확진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체류자, 방역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함⁶⁵⁾
- (보험금 선지급 및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 지급) 케세이생명은 대만에서 최초로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보험금을 선지급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의료진인 보험계약자에게 5만 대만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함⁶⁶⁾
 - 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금을 선지급 받지만, 사후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남은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더 받을 수 있음
 - 한편, 대만생명 및 글로벌생명은 의료진인 보험가입자에게 5만 대만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함

마. 유럽

- (보험료 납입 및 상환 옵션)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대해 상환 옵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⁶⁷⁾⁶⁸⁾
 - 보험료 납입 연기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자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보험 보장을 유지함⁶⁹⁾

64) 中國人壽, 法定傳染病-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因應專區 등임

65) 國泰人壽,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南山人壽, 新聞中心, 保戶關懷及房貸紓困雙管齊下 南山人壽挺保戶和醫護 全面擴大適用對象

66) 國泰人壽,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67) AXA 홈페이지(<https://www.axa.co.uk/c-19-business-pledge/>)

68) AVIVA 홈페이지(<https://www.aviva.co.uk/help-and-support/coronavirus/>)

69) Insurance Europe 홈페이지(<https://www.insuranceeurope.eu/covid-19-coronavirus>)

- (여행보험)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보험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⁷⁰⁾ 해외 체류 중인 여행보험 가입 고객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간 무료 연장이 가능하며,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무료 이전이 가능함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해 보장을 강화하고, 특히 필수 근로자 및 NHS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보장함
- (주택보험) 고객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주택보험이 보장되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주택이 비어 있는 경우 도난, 고장, 기물 파손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나 기준일을 최대 12주로 연장하기도 함⁷¹⁾
- (기업보험)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보장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면책 미적용) 호주 투자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협회(FSC: Financial Services Council)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보험가입 거절 및 전염병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⁷²⁾
 -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일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영구장해보험) 금융서비스협회(FSC)는 생명보험회사들이 호주 정부의 3차 경제부양패키지의 일환인 일자리 지키기 조치에 협력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영구장해보험(TPD: Total Permanent Disability)⁷³⁾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함⁷⁴⁾

70) Royal&Sun Alliance 홈페이지(<https://www.morethan.com/coronavirus/>)

71) UK Insurance Limited 홈페이지(<https://u-k-insurance.co.uk/covid.html#faqs>)

72)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fsc.org.au/policy/life-insurance/commitments#front>)

73)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되었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임

74)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

- 생명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도 이들의 영구장해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영구장해보험은 퇴직연금상품 중 하나로, 질병이나 사고로 퇴직하기 전까지의 총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달라짐
 - 이러한 조치는 2020년 9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 전까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 (위험관리 계획) 금융서비스협회(FSC)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처리 및 고객문의 등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감염병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함⁷⁵⁾
 - 건전성감독청(APRA)의 Prudential Practice Guide 233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싱가포르

- (보장범위 확대) 2020년 2월 싱가포르 보험회사는 Integrated Shield Plans,⁷⁶⁾ 개인건강보험, 단체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용을 보장해주기로 함⁷⁷⁾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금, 일별 입원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하기로 함
 - 건강보험 및 단체보험 계약자는 입원 후 최대 14일까지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Integrated Shield Plans 및 단체보험 계약자는 원격의료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납부 연장)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제공함⁷⁸⁾

75)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

76) 메디셴드 라이프 외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한 의료보험임

77) 싱가포르 통화감독청(<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welcomes-measures-by-financial-institutions-to-support-customers-facing-the-impact-of-covid-19>);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industry-performance/2020/life-insurance-industry-achieves-20-per-cent-increase-in-sa-for-q1-2020/>)

78)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media-releases/2020/measures-by-life-insurers-to-support-customers-financially-impacted-by-covid-19/>);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and-financial-industry-to-support-individuals-and-smes-affected-by-the-covid-19-pandemic>)

○ 2020년 4월 1일~9월 30일 기간 동안 보험 갱신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부거래 분할납부를 허용함⁷⁹⁾

○ 손해보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대면거래를 피하기 위하여 전자 결제도 허용함

79)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https://gia.org.sg/agents/media-center/company-news/490-measures-taken-by-general-insurance-sector.html>)

4. 팬데믹 리스크

가. 미국

■ 연방정부는 팬데믹 리스크 보험법(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 초안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팬데믹 관련 기업휴지보험의 손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Federal Pandemic Risk Reinsurance Program)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손실을 1년간 최대 5,000억 달러 한도로, 2억 5천만 달러(공제액)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95%, 보험회사가 5%를 부담하는 것을 초안으로 담고 있음
 - 손실 2억 5천만 달러까지는 팬데믹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부담함
 - 미국의 9/11 사태 이후 마련된 테러보험 프로그램(TRIA: 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을 모델로 함
- 7개 주가 기업휴지보험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소급적용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⁸⁰⁾한 상태이나, 보험회사의 재정 악화 가능성 및 복잡한 법적 문제 등의 이슈가 존재함

■ 미국 리스크관리협회(RIMS: Risk Management Society)는 미 재무부, 의회 및 대통령 집무실에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 팬데믹 리스크 보험법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2020. 4. 21)⁸¹⁾

- RIMS가 미국 리스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1%가 전염병과 관련된 보험 청구에 대해 테러보험법과 유사한 연방 손실공유 프로그램을 지지함
- 미국소매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⁸²⁾ 또한 팬데믹 리스크 보험 법안 통과를 촉구함(2020. 4. 23)⁸³⁾

80)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east/2020/04/15/564920.htm?print>

81)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326/type/eDaily/US-RIMS-pushes-for-a-pandemic-risk-insurance-programme>)

82) 미국소매협회(NRF)는 백화점, 인터넷 및 독립 소매점, 레스토랑 체인 및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여 소매업 회원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소매 무역협회임

83)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367/type/eDaily/US-Major-retailers-call-for-pandemic-insurance-programme>)

나. 일본

■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 선포 시 급부를 지급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2018년에 개발하여 판매함⁸⁴⁾

○ (개발 배경)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기업의 대규모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음

■ (상품 특징)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기업의 매출 감소와 대책 비용 증가 위험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수익 안정화를 목적으로 개발함

○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대상기간(1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사망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

○ 국내 사망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지급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조사 및 고객의 청구서류가 불필요하는 등 지급절차가 간단함

○ 보험상품은 실제 피보험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지만, 금융파생상품은 사전에 정한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출함

- 따라서 보험은 손해액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반면, 금융파생상품은 불필요함

■ (활용사례) 공장 및 사무실 영업 중지, 여행업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활용함

○ 제조기업 등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해 공장 또는 사무실이 일시 폐쇄되어 발생하는 생산 중단과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

○ 여행·레저 산업 및 철도·항공 산업의 경우 이용객, 숙박객, 승객 등의 감소 리스크를 헤치할 수 있음

84) KIDI BRIEF(2020. 2)

다. 유럽

-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무역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재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함⁸⁵⁾
 - 이 제도는 무역신용보험의 지속적인 가용성 보장 및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것임
- 영국보험업계도 정부 지원 테러 재보험기금 Pool Re와 함께 팬데믹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보험회사 사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⁸⁶⁾
- 프랑스는 팬데믹 보험 보장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잠재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⁸⁷⁾
 -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Bruno Le Maire가 설립한 실무 그룹에는 국회의원, 기업가, 프랑스 보험협회, 공공재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6월 상반기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 논의 중인 계획 중 하나는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CatNat 체제의 모방임(CCR: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85) ABI(2020. 5. 13), "ABI backs Government plans for a temporary reinsurance scheme so businesses can continue to access trade credit insurance"

86) Business Insurance(2020. 4. 29), "France drafting future insurance backstop for pandemics"

87) Business Insurance(2020. 4. 29), "France drafting future insurance backstop for pandemics"